

한국 개신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신 광 철

> 차 례 <

- | | |
|------------------|-------------------------|
| 1. 여는 말-종교영화의 의의 | 3. 한국 개신교영화의 내용 |
| 2. 한국 개신교영화의 현황 | 4. 닫는 말-한국 개신교영화의
전망 |

1. 여는 말-종교영화의 의의

인류는 영화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무언가의 실현(realization)을 꿈꾸어 왔다. 종교학자 엘리아데(Mircea Eliade)가 영화를 '꿈의 공장'(dream factory)으로 묘사한 것은 영화가 지니는 이러한 특성을 전제한 것이다.¹⁾ 영화가 출현한 이래로 영화를 통한 꿈꾸기는 다양한 장르(genre)를 통해서 추구되었으며, 그 꿈의 색채는 장르에 따라 다양한 빛깔로 펼쳐졌다.

종교영화(religious film)는 그러한 다양한 장르 가운데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가 종교영화를 통해 꿀 수 있는 꿈은 다른 장르의 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것과 다른 맛깔을 지닌다. 종교영화란 '종교적 주제를 다루는 영화'를 총칭하는 것이다.²⁾ 영화사(映畵史)를 돌이켜 볼 때, 종교와 영화는 운명을 함께해 온 쌍두마차요 동반자였는 바,³⁾ 이는 두 범주가 전형적인 '꿈꾸기의 길'로서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길'은

* 이 글은 한국종교학회 2000년 추계발표회(2000년 11월 4일) 기독교분과에서 발표된 것을 약간 보완한 것이다. 분과 발표회에서 도움 말씀을 주신 김재영, 신재식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사를 드린다.

** 한신대 교수, 종교문화학

1)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Harcourt, Brace & World, Inc : New York, 1959, p. 205.

2) 이승구·이용관 엮음, 『영화용어 해설집』, 집문당, 2000, '종교영화' 항목.

3) 정중화, 「영화사와 운명을 같이해 온 종교영화」, 『영화』 제90호, 1984.5., p. 32.

하나의 지향점을 향하고 있다. 그 지향점은 바로 '구원을 향한 질주'이다.⁴⁾

한국영화 역사에서 종교영화는 매우 독특한 위상을 차지해 왔다. 종교영화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장르로 손꼽히기도 한다.⁵⁾ 실제로 해외 영화제에서 좋은 실적을 올렸거나 외국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영화 가운데에는 종교영화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⁶⁾ 뿐만 아니라 영화는 종교간 만남의 과정에서 훌륭한 매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1997년부터 매년 여러 전통의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종교예술제를 열어 종교간 만남의 길을 넓혀가고 있는 바, '대한민국 종교예술제'는 음악제, 미술제, 영화제로 짜여져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에서 영화제의 경우, 각 종교전통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관하는 한편, 각자의 전통과 관련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상영함으로써, 영화를 매개로 해서 자연스럽게 종교간 교

4) '종교와 영화' 내지는 '종교-체험과 영화-체험'이 지나는 이와 같은 구조적 유사성은 영화에 대한 종교학적 성찰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 종교학계의 경우, 상당수의 종교학자들이 영화 내지는 영화-체험을 종교적 맥락 내지는 종교학적 안목에서 읽어내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 영화에 대한 종교학적 성찰의 대표적인 성과물로는 John R. May와 Michael Bird에 의해 편집된 *Religion in Film*(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82.), Joel W. Martin과 Conrad E. Ostwalt Jr.에 의해 편집된 *Screening the Sacred: Religion, Myth, and Ideology in Popular American Film*(Westview Press: Boulder · San Francisco · Oxford, 1995.), Margaret R. Miles의 *Seeing and Believing: Religion and Values in the Movie*(Beacon Press: Boston, Massachusetts, 1996.), John R. May에 의해 편집된 *New Image of Religious Film*(Sheed & Ward: Kansas City, 1997.)

이 밖에도, '종교와 영화'에 대한 관심은 웹진의 형태로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 *The Journal of Religion and Film*이란 제목 하에 1997년에 2권, 1998년에 3권, 1999년에 2권이 게시되었으며, 2000년 현재 2권의 분량이 웹진의 형태로 게시되고 있다. *The Journal of Religion and Film*의 편집은 William L. Blizek와 Ronald R. Burke가 맡고 있다. 이 웹진의 인터넷 주소는 www.unomaha.edu/~wwwjr/f이다.

'종교와 영화'는 또한 종교학 분야의 교양과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북미 여러 대학에서는 'Religion and Film'이라는 제목으로 종교학 교양 강좌가 개설되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에서는 필자가 1999년부터 한신대학교에서 종교학 분야의 교양과목으로 '종교와 영화'를 개설하였는 바, 학기당 7-8개 강좌에 800-900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한신대학교 외에도 호남신대학교에서도 1999년부터 '종교와 영화'가 개설되었다. '종교와 영화'는 이른바 '영상 문화' 세대 내지는 '이미지' 세대로 불리는 신세대 학생들에게 종교학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5) 김지석, 『개달음과 이타행 그리고 소외 - 한국의 종교 영화』, 『한국영화 읽기의 즐거움』, 책과 몽상, 1995, pp. 50-51.

6) 로카르노영화제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배용균 감독), 모스크바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강수연)을 수상한 「아제 아제 바라아제」(임권택 감독), 베니스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강수연)을 수상한 「씨반이」(임권택 감독)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종교영화가 지니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종교영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미진한 편이었다. 불교영화에 대해서 몇 편의 글이 발표된 바 있으며,⁸⁾ 가톨릭(천주교)영화에 관해 두 편의 글이 발표된 정도에 불과하다.⁹⁾ 프로테스탄트(개신교) 영화의 경우, 상당히 많은 작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조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속을 소재로 한 영화나 신종교를 소재로 하는 영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7) 참고로 지금까지 실시된 대한민국종교예술제 영화제의 현황을 소개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영화제 상영작 일람표

	주관 전통	작품	감독
제1회 1997년 9/29-10/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관	불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리를 부다	배용균
	천주교	희생 로메로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존 루이강
	개신교	바베트의 만찬 빛은 내 가슴에	가브리엘 액셀 이기원
제2회 1998년 10/19-10/25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주관	불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정지영
	천주교	노스텔지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개신교	새벽을 깨우리로나	이기원
제3회 1999년 10/27-10/30 대한불교 조계종 주관	불교	오세암	박철수
	천주교	레이닝 스톤	켄 로치
	개신교	이집트 왕자	브랜다 챔프만 외 2인
	천도교	개벽	임권택
제4회 2000년 10/25-10/28	불교	컵	키엔츠 노부
	천주교	안중근 의사(복한 영화)	엄길선
	개신교	마태복음	베에르 베울로 베졸리니
	좋은 영화	내 마음의 풍금	이영재

- 8) 송희복은 세계화를 추진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한국적인 영화의 한 가지 사례로 불교영화를 손꼽은 바 있다.(송희복, 『영화 속의 열린 세상』, 문학과 지성사, 1999, p. 215.) 한국의 불교영화에 대한 연구성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① 정재형, 「불교영화의 흐름과 전망」, 『승가』 10, 중앙승가대학, 1993. ② 정재형, 「영화와 불교」, 『다보』, 1995년 가을호. ③ 이진, 「한국 불교영화 연구」, 『영상학보』 제6호, 동국대학교 연구영상학부, 1996.
- 9) 김영길, 「한국 현대 영화와 가톨릭시즘」, 오태순 신부 은경축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사회와 복음선교(오태순 신부 은경축 기념 논문집)』, 도서출판 빅벨, 1994. 필자 또한 최근 '부산교회사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에서 한국의 가톨릭영화의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필자의 발표에 대해서는 영화평론가 김사겸 선생이 논평을 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사겸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필자의 발표 내용 및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신광철, 「한국 가톨릭영화의 회고와 전망」, 『부산교회사보』 제28호,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회사연구소, 2000.10.21., pp. 20-29. 同 「토론요지」(김사겸), pp. 29-31. 同 「답변요지」(신광철), pp. 31-32.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 분야 연구의 기초를 닦는다는 취지에서 한국의 종교영화에 대한 각론을 하나씩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일단 한국의 개신교영화의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개신교영화란 넓은 의미에서 '개신교를 소재로 한 영화'를 말하는 것이다.¹⁰⁾

2. 한국 개신교영화의 현황

한국의 개신교영화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연구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 개신교영화의 외연(外延)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필자가 '한국영상자료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정리한 결과에 의하면,¹¹⁾ 넓은 의미의 개신교영화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은 총 34편에 달한다.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한국 개신교영화의 목록은 아래의 <표2>와 같다.¹²⁾

- 10) 이러한 정의는 정재형이 불교영화를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로 규정한 것을 참고한 것이다.(정재형, 『영화와 불교』, 『다보』 1995년 가을호, p. 24.)

미국 종교학계에서는 '기독교와 영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독교와 영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작성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주요한 참고문헌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이하 참고문헌을 발표 연대순으로 정리하였음.)

* Robert Jewett, *Saint Paul at the Movies : The Apostle's Dialogue with American Culture*, Westminster/John Knox Press : Louisville, Kentucky, 1993.

* Larry J. Kreitzer, *The New Testament in Fiction and Film : On Reversing the Hermeneutical Flow*, Sheffield Academic Press : Sheffield, England, 1994.

* Larry J. Kreitzer, *The Old Testament in Fiction and Film : On Reversing the Hermeneutical Flow*, JSOT Press : Sheffield, England, 1993.

* Bernard Brandon Scott, *Hollywood Dreams and Biblical Stories*, Fortress Press : Minneapolis, 1994.

* ed. by Clive Marsh & Gaye Ortiz, *Explorations in Theology and Film : Movies and Meaning*, Blackwell Publishers : Massachusetts, 1997.

* Lloyd Baugh, *Imagining the Divine : Jesus and Christ-Figures in Film*, Sheed & Ward : Kansas City, 1997.

* W. Barrens Tatum, *Jesus at the Movies : A Guide to the First Hundred Years*, Polebridge Press : California, 1997.

- 11) 한국영상자료원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koreafilm.or.kr>이다.
12) 물론 필자의 조사가 한국 개신교 영화의 전체를 아우르는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 개신교 영화의 외연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점에 따라서는 외연이 더욱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 한국의 개신교영화

연도	작품명	감독	주요 배우	특기 사항
1948	죄없는 죄인	최완규	황여희, 박일룡, 황재경	황재경 목사 직접 출연
1948	유관순	윤봉춘	고춘희, 이선경, 이일선, 박순봉	
1959	유관순	윤봉춘	도금봉, 한은진, 이해룡	각본(유치진)
1961	상록수	신상옥	최은희, 신영균, 허장강, 도금봉, 신성일	원작(심훈)
1965	순교자	유현목	김진규, 남궁원	원작(김은국)
1966	유관순	윤봉춘	엄앵란, 김석훈, 최남현	
1972	무녀도	최하원	윤정희, 허장강, 신영일, 김창숙, 사미자	원작(김동리)
1974	유관순	김기택	문지현, 김진규, 문정숙	
1977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임원식	신영균, 고은아, 이순재	
1977	사랑의 원자탄	강대진	이신재, 이경희	
1978	상록수	임권택	한혜숙, 김희라, 이일용, 김형자	원작(심훈)
1978	사랑의 뿌리	강대진	장동휘, 윤일봉, 도금봉, 이승현	원작(천대성)
1979	올화	변장호	백일섭, 김지미, 유정현, 정애란	원작(김동리)
1980	사람의 아들	유현목	하명중, 강태기, 최불암, 오수미	원작(이문열)
1981	낮은데로 임하소서	이장호	이영호, 신성일, 나영희, 박정자	원작(이청준)
1981	어들의 자식들	이장호	나영희, 안성기, 김희라, 이대근, 박원숙	원작(황석영)
1981	나는 할렐루야 아름아였다	김수형	송도영, 신성일, 김인문, 김을동	원작(최자실)
1982	하늘로 가는 밝은 길	김성호	임동진, 문오장, 방희, 김운하	
1982	죽으면 살리라	강대진	박암, 윤복희, 김민규, 김해숙	원작(안익숙)
1983	과부춤	이장호	이보희, 박원숙, 박정자, 박송희	원작(이동철)
1983	불의 딸	임권택	박근형, 방희, 김희라, 윤양하	원작(한승원)
1984	상한 갈대	유현목	최정민, 박인준, 문순섭	
1986	순교보	임원식	신현섭	이기풍목사 외손(신현섭)
1989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기원	임동진, 김자옥	각본(김진홍)
1989	천국의 비밀	홍의봉	한인수, 이성희	
1989	엄마의 기도 나의 기도	임원식	오준승, 김은경	
1990	휴거	홍의봉	이종만, 정영숙, 김재이	
1991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최창규	김성범, 황기현, 김석태	
1991	예수천당	홍의봉	이영후, 성찬숙, 맹찬재	
1991	외길가게 하소서	오영석	방희, 한인수	원작(김계화)
1994	무거운 새	곽정환	손창민, 송채환, 임동진	원작(김광주)
1994	불행한 아이의 행복	임원식		
1995	빛은 내 가슴에	이기원	이세창, 김예지, 이재은, 이경기	원작(강영우, 석은옥)
1997	할렐루야	신승수	박중훈, 이경영, 성현아, 이제니	

위에 제시된 <표 2>에 의하면, 한국의 개신교 영화는 1940년대에 2편, 1950년대에 1편, 1960년대에 3편, 1970년대에 7편, 1980년대에 13편, 1990년대에 8편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개신교 영화가 본격적인 장르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1980년대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작품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한국 개신교계가 1984년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준비하고 기념하는 움직임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국의 개신교계가 스스로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과정에서, 영화 영역에서도 나름의 안목으로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표 2>에 의하면, 2편 이상의 작품을 발표한 감독들로는 윤봉춘(3편), 유현목(3편), 이장호(3편), 임원식(3편), 강대진(3편), 홍의봉(3편), 이기원(2편), 임권택(2편)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개신교영화를 대표하는 감독들로는 <순교자>와 <사람의 아들>을 만든 유현목, <사랑의 원자탄>과 <죽으면 살리라>를 만든 강대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만든 임원식, <예수천당>을 만든 홍의봉, <새벽을 깨우리로다>를 만든 이기원 등을 꼽을 수 있다.

3. 한국 개신교영화의 내용

한국 개신교영화의 효시를 이루는 작품으로는 최인규 감독의 <죄없는 죄인>(1948년)을 꼽을 수 있다.¹³⁾ 이 영화는 황재경(黃才景) 목사의 수기를 영화화한 것으로서, 황 목사가 직접 출연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 기독교애련선교단'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한 황목사의 삶을 다룬 이 영화의 제작을 지원한 바 있다.¹⁴⁾

1948년에는 윤봉춘 감독의 <유관순>이 개봉되었다. 16밀리로 제작된 이 영화는 유관순 역을 맡은 배우 고춘반(高春班)의 열연에 힘입어 흥행에도 크게 성공하였다.¹⁵⁾ 윤봉춘 감독은 1959년과 1966년에도 유관순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였으니, 한 작가가 같은 소재를 세 번이나 연출했다는 것도 기록적인 일이라 할 만하다.¹⁶⁾ 유관순의 삶과 구국운동을 소재로

13) 정종화, 『자료로 본 한국영화사 2, 1955-1997』, 열화당, 1997, p. 128.

14) 위의 책, p. 136.

15) 위의 책, p. 126.

16) 호현찬, 『한국영화 100년』, 문학사상사, 2000, p. 107.

한 영화는 1974년에도 제작되었다. 네 번째 유관순 영화는 김기덕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

유관순과 함께 60년대 한국영화계의 주목 대상이 된 또 다른 개신교 인물로는, 심훈의 소설 『상록수』를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기독교 여성 계몽운동가 최용신이 있었다. 신상옥 감독은 1961년에 심훈의 소설 『상록수』를 원작으로 최용신의 생애를 영화화하였다. 신상옥 감독은 영화 <상록수>에서 원작이 지닌 정신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농촌계몽운동에 투신한 신 여성이 민족 현실에 참여하는 가운데 겪은 어려움과 사랑 체험을 플라토닉하게 묘사하였다.¹⁷⁾ 최용신(소설 『상록수』의 채영신) 역을 맡은 배우 최은희는 이 영화로 제1회 대중상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며, 그녀의 상대역을 맡았던 신영균은 제9회 아시아영화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상록수>는 정윤주의 영화음악이 돋보인 작품이기도 했다. 소설 『상록수』와 최용신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는 1978년 임권택 감독에 의해서도 만들어졌다. 임권택 감독의 <상록수>에서는 한혜숙이 최용신(채영신) 역을 맡았다.

한국 개신교영화의 초기 역사에 해당하는 1960년대의 작품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유현목 감독의 <순교자>(1965)였다. 유현목 감독은 재미 작가 김은국의 원작 『순교자』의 영화화 작업을 통해서 한국전쟁을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피비린내 나는 거레끼리의 전쟁 속에서 어느 누가 진실했던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 영화는 비슷한 시기의 전쟁영화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자신 고백적인 개신교도였던 유현목 감독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목사가 신의 존재에 회의를 품으면서도 민중의 신앙적인 요구에 따르고자 순교한다는 회의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무척 고민을 했다고 한다.¹⁸⁾ 유현목 감독은 순교의 진정한 의미를 파헤침으로써 이러한 회의(懷疑)에서 야기된 문제를 해명하고자 했다. <순교자>는 주연 배우 김진규의 묵직한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개신교영화가 다수 제작되어 장르로서의 가능성을 열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한국 개신교 영화의 주류는 이전 시기의 주된 경향을 계승한 전기영화류였다. 1970년대에 제작된 전기영화류의 작품들로는 앞에서 언급한 김기덕 감독의 <유관순>, 임권택 감독의 <상록수> 외에도, 신사참배 거부 투쟁을 벌이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¹⁹⁾의 생애

17) 최일수, 『상록수』,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 70년 대표작 200선』, 집문당, 1996, pp. 126-127.

18) 최일수, 『순교자』, 위의 책, pp. 166-167.

19) 주기철 목사의 삶은 1982년 제작된 <하늘로 가는 밝은 길>(김성호 감독, 1982)에

를 영화화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임원식 감독, 1977),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청년을 오히려 양자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한 손양원 목사의 생애를 묘사한 <사랑의 원자탄>(강대진 감독, 1977) 등이 제작되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에서 특별히 돋보이는 장면들로는 평양노회에서 주목사가 파면 당하는 씬, 주목사가 순교의 뜻을 굳혀 산상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을 주옵소서”라고 외치면서 금식기도를 드리는 씬, 주목사가 옥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소천하는 씬 등이다. 마지막 씬에서는 강제로 주사를 맞고 주목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슬로모션으로 잡음으로써, 주목사의 장렬한 죽음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²⁰⁾

1970년대에는 한국의 기독교와 무속을 위시한 전통적 신앙과의 관계를 성찰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70년대는 한국사회가 ‘중단 없는 전진’으로 상징되는 근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통’의 재발견이라는 시대의 의식을 느끼게 된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70년대는 한국 개신교계가 6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어 온 ‘토착화’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된 시기이기도 했다.

기독교와 무속 등 전통적 신앙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성찰한 영화로는 최하원 감독의 <무녀도>(1972)와 변장호 감독의 <올화>(1979)가 있었다. 최하원 감독은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를 텍스트 삼아 기독교와 무속의 갈등 관계를 고찰하였다. 소설과 영화의 주제 의식은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다. 소설이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서정적 리얼리즘에 주목하였다면, 영화는 모화라는 무당이 겪는 개인사적인 비극을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²¹⁾ 영화는 기독교의 자리에 서 있는 옥(신영일 분)과 무속 내지는 전통의 자리에 있는 옥의 어머니 모화(윤정희 분)를 축으로 두 세계관의 충돌 양상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두 세계관의 마주침은 옥이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털어놓고 낭(김창숙 분)과 함께 모화의 곁을 떠남으로써 파국을 맞게 된다. 낭은 모화가 그녀의 뒤를 이어줄 것으로 기대하여 고락을 같이해온 이였다. 영화는 신통력도 자식도 잃어버린 모화가 마지막 곳을 하며 물 속으로 빠져들면서 끝을 맺는다. 영화에서는 신영일이 2인 1역(옥의 아버지 ‘최도령’ 역과 ‘옥’ 역)을 맡고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시점이 긴밀하게 연관지어져 있으며, 전통과 기독교 역시 본래적 의미에서는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물론 영화의 결말에서처럼, 현실은 그 연결로부터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다.)

서도 영화화되었다.

20) 임영, 「저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진흥공사, 앞의 책, pp. 286-287.

21) 조희문, 「무녀도」, 위의 책, pp. 248-249.

변장호 감독의 <올화> 역시 김동리의 소설 『올화』를 텍스트 삼아 기독교와 무속의 관계를 성찰하고 있다. 기독교와 무속을 위시한 전통신앙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흐름은 8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도 유지되었다. 우리는 그러한 흐름을 임권택 감독의 <불의 딸>(198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권택 감독은 이 영화에서 독실한 기독교 가문의 데릴사위이자 잡지사 편집장인 해준(박근형 분)을 중심 축으로 해서 기독교와 무속의 교차점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해준이 데릴사위로 설정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위상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의 딸>은 앞의 두 작품과는 달리 주인공인 해준이 무당(용녀, 방희 분)의 아들인 자신이 기독교 가문에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한 갈등을 느낀 끝에, 자신이 속한 현실의 모든 것을 버리고 홀연히 무속의 고장을 찾아가는 것으로 매듭지어지고 있다.

1980년대는 가히 한국 개신교영화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전체 개신교영화의 1/3이 넘는 13편의 영화가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제 의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이 시기에도 역시 전기영화류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 신앙의 힘을 찾는 것에 담겨진 의미를 추구하는 작품, 기독교적 진리를 확인하는 작품, 기독교와 전통신앙의 관계를 성찰한 작품(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불의 딸>), 사회 비판 내지는 기독교문화 비판 성향의 작품 등 한국 개신교영화의 전반적인 주제가 망라되었다.

80년대에 제작된 전기영화류 작품들로는, 맹인선교에 헌신한 맹인 목회자 안요한 목사의 삶을 영화화한 <낮은 데로 임하소서>²²⁾(이장호, 1981), 조용기 목사와 함께 여의도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최자실 목사의 삶을 그린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김수형, 1981), 주기철 목사 등 초기 신앙 지도자들의 삶을 회상한 <하늘로 가는 밝은 길>(김성호, 1982),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고난을 당한 안이숙 권사의 생애를 묘사한 <죽으면 살리라>(강대진, 1982), 최초의 한국인 목사이면서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된 전도자 이기풍 목사를 기념하여 제작한 <순교보>(임원식, 1986), 남양만 두레공동체와 활빈교회를 설립하여 공동체 신앙의 의미를 구현한 김진홍 목사의 생애를 영화화한 <새벽을 깨우리로다>(이기원, 1989) 등이 있다.

80년대에는 기독교적 진리의 근원성에 대한 심각한 물음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니, 이러한 경향의 작품으로는 유현목 감독의 <사람의 아들>(1980), 그리고 이장호 감독의 <어둠의 자식들>(1981)과 <과부춤>(1983) 등이 있

22) <낮은 데로 임하소서>는 이창준의 『맹인 안요한 목사의 생애』를 텍스트로 삼았다.

다. 이 작품들은 기독교의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표출함으로써, 당대의 역사적 시점에서 기독교가 어떠한 좌표를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도전적인 제안을 하였다. 이 시기는 이른바 '개인 구원' 대 '사회 구원' 논쟁이 한창이었던 때이기도 했다.

<사람의 아들>은 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을 원작으로 한 것이었다. 유현목 감독은 신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구도로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의식에 다가서고 있다. 유현목 감독은 영화에서 신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거나 악에 대한 선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 지니는 의미를 천착하고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제19회 대종상 최우수작품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장호는 황석영의 소설을 저본으로 한 <어둠의 자식들, 제1부 카수영애>를 통해 창녀들의 진지한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 위선적인 교회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한편,²³⁾ 이동철의 소설을 텍스트로 삼은 <과부춤>에서도 한국사회의 밑바닥을 해부하면서 그러한 밑바닥 인생들을 보듬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이용하는 위선적인 종교인들과 교회의 폐해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80년대에는 현실 세계와 생활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여 왔으며, 또한 무엇을 의미해야만 하는가를 묻는 작품들도 제작되었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로는 <상한 갈대>(유현목, 1984), <천국의 비밀>(홍의봉, 1989), <엄마의 기도 나의 기도>(임원식, 1989)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이 시기 한국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 초반의 성찰기(전통신앙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독교의 위상 정립, 현실 사회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성찰 등)를 지나 현실 생활 속으로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음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80년대의 전성기를 지나 90년대에 들어서는 개신교영화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편수도 편수이거니와, 내용 면에서도 이렇다할 만한 작품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힘에 의지한 삶을 추구하는 영화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물음과 해답을 구하는 영화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전자의 경우 <불행한 아이의 행복>(임원식, 1992), <무거운 새>(곽정환, 1994) 등이 있었고 후자의 경우 <휴거>(홍의봉, 1990),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최창규, 1991) 등이 있었다. 이들 작품은 일반인들로부터나 신앙 대중으로부터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도 전기영화류의 작품들이 역시 제작되었다. 초기

23) 사토 다다오, 고재운 역, 『한국영화와 임권택』, 한국학술정보(주), 2000, p. 180.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전도자인 최봉석(최권농) 목사의 생애를 영화화한 <예수천당>(홍의봉, 1991)과 할렐루야 기도원장인 김계화 목사 이야기를 영화화한 <외길가게 하소서> 등이 있으나, 역시 주목을 끌지 못했다. 1997년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과는 무관하지만 한국교회 내지는 종교계의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한 <할렐루야>(신승수, 1997)가 개봉되어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4. 달는 말-한국 개신교영화의 전망

앞서 제2장과 3장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의 개신교영화의 현황과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한국의 개신교영화는 대략적으로 볼 때, 전기영화의 성격을 지니는 것, 신앙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거나 삶의 의미를 되찾는 내용을 담은 것, 기독교적 가르침을 확인·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것, 기독교와 무속 등 전통신앙의 갈등을 다룬 것, 한국사회 비판 내지는 기독교문화 비판 성향의 작품 등으로 대별된다.²⁴⁾ 이를 토대로 기왕에 분석한 작품들을 분류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아래의 <표 3>에 의하면, 한국의 개신교영화는 전기영화의 성격을 지니는 작품이 주된 흐름을 형성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기영화의 성격을 지니는 작품들에서는 유관순, 최용신, 주기철, 안이숙, 손양원, 이기풍, 최봉석, 황재경, 안요한, 김진홍, 최자실, 김계화, 강영우/석은옥 등의 삶이 다루어졌다. 이들 인물들을 해방전의 인물과 해방후의 인물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해방전의 경우는 애국운동에 공헌한 그리스도인(유관순, 최용신), 순교자(주기철, 안이숙), 선교 및 전도 활동에 공헌한 그리스도인(이기풍, 최봉석)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한국 개신교영화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해방전의 인물 선정은 대체로 한국교회의 역사의 중요한 테마들과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

24) 참고로 필자가 가톨릭영화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가톨릭영화는 전기 영화, 순교사화 영화, 한국전쟁 중에서 교회 내지는 신앙의 정체성을 모색한 영화, 수녀의 삶을 중심으로 수행의 세계에 담겨진 의미를 탐구하는 영화, 타종교와의 만남의 가능성을 모색한 영화, 그리고 본격적인 역사영화 등으로 대별된다. 가톨릭(천주교)영화와 개신교 영화의 분류체계에는 두 전통의 종교적 성격이 일정 정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톨릭영화의 경우, 초기의 순교 역사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개신교영화의 경우는 초기의 애국애족운동 및 계몽운동의 역사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톨릭영화가 신앙의 내면성에 집중하고 있다면, 개신교영화는 상대적으로 신앙의 외적 표현에 주목하고 있는 점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이에 비하여 해방후의 인물 선정은 상대적으로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들이 현대 한국개신교를 대변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몇몇 작품의 경우, 인물 선정에 있어 영화적 맥락 이외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표 3> 한국 개신교영화의 분류

	관련인물	작품
	전기 영화의 성격을 지니는 작품	황재경
유관순		유관순(윤봉춘, 1948) 유관순(윤봉춘, 1959) 유관순(윤봉춘, 1966) 유관순(김기덕, 1974)
최용신		상록수(신상옥, 1961) 상록수(임권택, 1978)
손양원		사랑의 원자탄(강대진, 1977)
주기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임원식, 1977) 하늘로 가는 밝은 길(김성호, 1982)
안요한		낮은데로 임하소서(이장호, 1981)
최자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김수형, 1981)
안이숙		죽으면 살리라(강대진, 1982)
이기풍		순교보(1986)
김진홍		새벽을 깨우리로다(이기원, 1989)
최봉석		예수천당(홍의봉, 1991)
김제화		외길가게 하소서(오영석, 1991)
강영우, 석은옥		빛은 내 가슴에(이기원, 1995)
신앙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거나 삶의 의미를 되찾는 내용을 담은 작품	상한 갈대(유현목, 1984) 천국의 비밀(홍의봉, 1989) 엄마의 기도 나의 기도(임원식, 1989) 불행한 아이의 행복(임원식, 1992) 무거운 새(곽정환, 1994)	
기독교적 진리를 확인·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	순교자(유현목, 1965) 사랑의 뿌리(강대진, 1978) 휴거(홍의봉, 1990)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최창규, 1991)	
기독교와 무속의 갈등을 다룬 작품	무녀도(최하원, 1972) 울화(변장호, 1979) 불의 딸(임권택, 1983)	
한국사회 및 한국 기독교 문화 비판 성향의 작품	사람의 아들(유현목, 1980) 어둠의 자식들(이장호, 1981) 과부춤(同, 1983) 할렐루야(신승수, 1997)	

개신교영화의 경우 가톨릭영화에서의 <이재수의 난>과 같은 본격적인 역사영화가 아직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현재 전기영화가

역사영화의 소명까지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 전기영화에서 다루어지는 인물의 폭에 보다 다양성을 기하면 좋으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인물이 아닌 신앙 대중의 차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예컨대 초기 한국교회의 전도부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화해 본다면, 초기 한국교회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선교사들을 영화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면, 선교의 함의를 파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동시에 근대에 있어 서양 문명의 위상과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한 생각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기영화가 특정 인물을 지나치게 영웅시하게 될 위험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영화적 상상이 역사 현실에 반하여 없는 사실을 만들 수 있는 위험 또한 경계해서 제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기류 영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장치를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설명이 역사적 설득력을 담지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물론이다. 이러한 설득력은 탄탄한 내러티브 구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심도 깊은 역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나리오 및 영화 제작 과정에서 교회사가들의 도움을 얻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앙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거나 삶의 의미를 되찾는 내용을 담은 작품들의 경우, 준비 및 제작 과정의 충실함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대체로 신앙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의 영화일수록 신앙 대중의 영성의 현실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영화가 단순하게 어떠한 신앙적 교훈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제작된다면,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류의 작품들은 대부분 시나리오 작업이 탄탄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내용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자칫 영화가 예술로서 자리매김되기보다는 하나의 이념적 구호에 그치기 쉽상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교계 차원에서 신앙 수기를 공모하여 채택된 작품을 텍스트 삼아서 영화화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해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는 작품은 <순교자>의 경우에서 보듯이 영화적 맥락에서도 매력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류의 작품은 단지 신앙인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 비신앙인들에게도 기독교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앙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거나 삶의 의미를 되찾는 내용을 담은 작품들보다 오히려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기독교와 무속 등 전통신앙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영화는 더욱 장려되어

야 할 것이다. 선교 100년이 훨씬 넘은 역사를 지닌 개신교에 대해 여전히 “개신교는 한국종교인가”라는 물음이 던져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종교간 충돌의 가능성이 큰 전통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제에 대한 영화적 접근은 신앙 대중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70-80년대의 개신교영화가 기독교와 무속의 갈등에 골몰하였던 것처럼, 오늘의 개신교영화는 불교와의 관계에 대한 영화적 성찰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가톨릭과 불교의 만남을 진지하게 모색한 박철수 감독의 <오세암>(1990)은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아울러 오늘의 개신교영화는 제사 문제를 둘러싼 기독교적 세계관과 유교적 세계관의 갈등 양상을 영화적으로 성찰하려는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사회 비판 내지는 기독교문화비판 성향의 작품들 또한 좀더 진지하고 심도 깊은 성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개신교가 점유해온 ‘문명기호(a sign of civilization)로서의 위상에 대한 영화를 통한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이 가능한 때가 도래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선교와 제국주의의 함수 관계를 묻는 영화적 작업도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박광수 감독의 <이재수의 난>은 검토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화와 역사의 만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다 진지하고 중량감 있는 영화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역사가들과 영화인들의 합동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개신교영화가 명실상부한 역사영화로 자리매김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영화가 지니는 대중적 영향력과 국제문화적 유포 능력을 전제할 때, 역사성을 담지하면서 영화적 예술성이 뛰어난 한 편의 영화는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지니는 미덕과 한국 개신교도들의 신앙적 고뇌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전할 수 있는 훌륭한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한국 개신교영화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신교영화의 방향성을 간단히 성찰해 보았다. 개신교영화의 진로 모색이 실효성을 획득하려면, 각 작품에 대한 꼼꼼하고 심도 깊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개신교 영화의 윤곽을 파악하는 선에서 기초적 작업을 실시했을 뿐이다. 기회가 닿는 대로 각 작품에 대한 상세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작업의 성과를 토대로 개신교영화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을 약속드린다.